

정몽구회장 보석 석방

현대차 수사 사실상 마무리

정·재계 로비 의혹 못 밝히고...

비자금 용처 '꼬리 자르기' 관측도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이 28일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게 됨에 따라 석 달 가까이 진행된 현대차 비자금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형사 책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김동진 부회장 등 관련자 수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힌 우회적으로 검찰 수사가 더 확대되지는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비자금 용처와 관련해 검찰이 계속 현대차를 압박해야 할 상황이었다면 법원에 수사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의견을 강하게 전달했겠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그런 부분을 참고한 흔적은 엿보이지 않는다.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접수한 뒤 27일만에 허가한 것도 검찰의 수사 기록 등을 살펴보고 향후 수사의 강도와 정 회장 구속 필요성의 상관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석 사유만 놓고 보면 정 회장이 풀려난 뒤 비자금 용처 수사 중 세간의 이목을 끌 만한 사안이 터지진 않았지만 재판부도 고만 끝내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용처 수사가 일부 남아있지만 큰 지장은 없다"고 말해 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용처 부분과 관련, (주)위아 등 부실 계열사의 부채탕감 로비 부분에 집중

해 금융권으로 수사를 확대했으나 이번 보석 결정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성과를 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처지에서는 정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고, 정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 기소유예로 사실상 형사 처벌을 피하는 등 최대한 방어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이상 수사에 '협조'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비자금 용처와 관련해 이미 변호사 전 재경부 금융정책 국장과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등이 구속돼 있어 현대차로서는 추가로 관련자들이 드러나면 대외적으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검찰이 정 회장의 영장 내용에 기재했던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나 금융범죄로 김재욱씨와 연관된 의혹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어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되면 논란거리로 남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현대차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재욱씨를 통한 정·재계 로비 의혹은 내내 '수사 중'이라는 원칙만 밝혔을 뿐 성과를 내놓지는 못했다. 정 회장이 정식으로 경영에 복귀하고 대외 활동을 재개하게 되면 정 회장 부자나 현대차 임원들을 소환해 용처 부분을 수사하는 것도 검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 회장 보석으로 비자금 용처 수사가 정치 자금이나 정·재계 로비 의혹 부분은 남겨 둔 채 '꼬리 자르기' 식으로 끝나는 것이냐는 관측이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법원의 보석허가로 석방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이 28일 입원 치료를 받기 위해 신촌 세브란스병원 입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교때 선유도 해수욕장서 피랍 '가짜유골' 논쟁 日메구미와 결혼

김영남씨 납북서 어머니 상봉까지

고교생 신분으로 북한에 끌려간 김영남(45)씨가 28일 금강산 남북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 최계월(82)씨와 누나 영자(48)씨를 28년만에 재회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3시 금강산에서 열린 제14차 이산가족 특별상봉 4회차 행사 첫 일일인 단체상봉 기회를 통해 납북의 어머니와 눈물속에 상봉했다.

김씨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엄마, 나 맞아. 막내 맞아, 오래오래 사셔야지. 막내아들이 이제 효도 좀 할게"라면서 최씨를 부둥켜 안았다.

그는 "막내 아들 걱정을 많이 했을텐데 불효막심한 아들이 절을 드리겠다"고 최씨에게 큰절을 올린 뒤, 어머니의 건강 상태, 형제들 안부 등을 물으며 28년 만의 상봉 회포를 풀었다.

한반도 분단과 남북 대결의 아픔을 온 몸으로 겪어낸 두 모자의 이번 상봉은 그 상처의 깊이 만큼이나 극적으로 이뤄졌다. 김씨가 납북된 것은 16세 때인 1978년 8월 5일.

당시 군산기계공고 1학년이던 김씨는 여름방학을 맞아 군산시에 있는 선유도 해수욕장에 피서갔다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됐다. 김씨는 함께 피서 온 선배들에게 꾸중을 듣고 숙소에서 빠져나와 해변에서 혼자서 훌쩍이고 있다가 공작조에 의해 발견돼 북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이 당시 북한은 '이남화(以南化) 교육(남과간첩교육)'을 위해 김씨를 포함, 남한 고교생 5명을 납치했다. 김씨가 실종된 후 남한 가족들은 해변을 샅샅이 수색하며 그를 찾았으나 끝내 행방을 파악하지 못했다. 어머니 최씨는 "영남이가 바닷물에 빠져 죽은 줄만 알았다"며 실종 날짜를 제삿날로 삼아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납북된 이후 북한에서 '김철준', '김영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김정일정치군사대학을 졸업했으며 대남공작기관인 북한 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에서 근무했다.

이후 1986년 8월 평양 순안공항 인근 대양리 초대소에서 일본어를 배우며 알게 된 같은 납북자 신분인 일본인 요코다 메구미(77년 납북)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메구미씨가 1987년 9월 딸 혜경(은경)양을 출산한 뒤 심각한 산후 우울증을 앓아 부부 사이에 금이 갔고 1993년 가을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메구미씨는 1994년 자살했다고 북한이 발표했다.

김씨는 97년 박춘희(31)씨와 재혼해 딸을 낳았으나 이 아이는 한 살 때 사망했고 이후 아들 철봉(7)군을 낳았다.

김씨는 2004년 11월 북·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아내 메구미씨의 유골을 직접 일본정부 대표단에 전달했으며, 일본측은 DNA 감정결과 제3자의 것이라고 주장해 '가짜유골' 논쟁이 빚어졌다. 이 당시 일본 대표단은 김씨가 "공작원 신분이기 때문에 신상을 밝힐 수 없다"고 하자 역제로 된 접착약을 손에 바르고 악수하면서 그의 손에 부착된 세포를 채집하고 여러 장의 가족사진을 놓고 확인하는 방법으로 지문을 몰래 채취했다고 북한은 주장했다.

이러한 첩보작전을 방불케 한 일본정부의 집요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김영남씨 모자 상봉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일본 정부는 메구미씨의 남편이 한국출신 납북자라는 증언에 따라 2002년 평양에서 메구미씨의 딸 혜경양로부터 확보한 시료와 1977~78년에 납북된 고교생들의 가족으로부터 채취한 혈액과 머리칼의 DNA를 대조한 끝에 올해 4월 11일 김영남-메구미씨가 부부 사이임을 최종 확인했다.

북한은 남한과 일본이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공조 움직임을 보이자 이날 8일 김영남씨의 북한 생존 사실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이날 김영남씨 모자의 상봉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연합뉴스

여수박람회 37명 중앙유치위 구성키로

박준영 전남지사, 해수부장관 등 간담회

박준영 전남지사는 28일 오전 서울 조선회관에서 김성진 해수부장관과 김재철 세계박람회중앙유치위원회장과 함께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계박람회 유치신청 및 중앙유치위원회 구성 등 범정부 차원의 유치 활동이 논의됐으며 정부와 민간의 재원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도 심도있게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 결과 중앙유치위 임원 구성은 위원장 1명과 집행위원 8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는 한편 사무처는 외교부, 해수부, 산자부, 민간 전문가 등 총 37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또한 유치 활동도 지난 엑스포 유치 활동과는 달리 지

방자치단체와 정부, 민간이 각자 역할을 분담, 보다 효율적 진행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박준영 지사는 특히 광양항 개발과 관련 김성진 해수부 장관에 "그동안 해수부의 입장이 수시로 바뀌면서 지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말로만 양향 정책을 강조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박준영 지사는 이날 낮 서울 여의도에서 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관련 협조를 당부했다.

박 지사는 또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계획) 건설과 관련 영산강 하구권 간척지 2,200만평의 무상 양도 및 관련 SOC 확충 등에 대해 지역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했으며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공동으로 구성된 만큼 특단의 인센티브가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회장 보석금 10억원 적정성 논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보석금 액수가 적정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 회장이 내야 할 보석금은 10억원. 이는 2003년 서울 남부지법에서 900억원대의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S건설사 김모(57) 회장이 낸 보석금 20억원 이후 최대 수준의 액수로 알려지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이 같은 해 1억원을 공탁하고 보석된 점과 비교할 때 정 회장의 보석금은 분명히 거액이다. 더구나 통상 일반 피고인의 보석금 수준인 500만~1천만원선과 견줘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

그러나 정 회장이 1천여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나 사회에 환원키로 밝

힌 돈이 1조원에 이른다든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액수는 '조족지혈(鳥足之血)'에 그친다는 반박도 나온다.

법원에 돈을 맡긴 부담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없어진 피고인의 경우 가급적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보석제도의 취지이다. 따라서 정 회장의 경우로 보석금 산정에 있어서도 '재벌 바꾸기' 관행이 잔존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도 있다.

때문에 얼마의 보석금이 적절한 것인지를 자제하게 다른 법규를 마련해 보석금 산정에서 '양적 평등'이 아닌 '질적 평등'이 구현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늘 청와대 당·청 회동

노무현 대통령과 김근태 의장 등 여당의 새 지도부가 29일 지방선거 참패 이후 약 한달만에 회동할 예정이어서 국정운영과 민심수습 등에 관한 당청간 조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지방선거 참패, 김근태 의장 체제 출범으로 이어지는 여당의 '비상상황' 속에서 청와대에 대한 당내의 비판으로 아귀뿔던 당청 관계의 긴장도를 감안할 때 청와대 만찬회동은 덕담이 오가는 '한가한' 자리는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 취임후 바로 청와대 회동이 열리지 않고, '땀'을 들 일대로 들다가 열리는 만큼 하고 싶은 말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요한 고비마다 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김 의장이 부동산 세제문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만한 테이블에 올려놓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Upgrade 세기보청기' (Upgrade Hearing Aid). The ad features a red background with images of hearing aids and text promoting '기술혁신의 선두주자' (Leader i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다재담백세 동행' (Aging with grace). It includes the company name '세기스타·세기보청기' and contact information.